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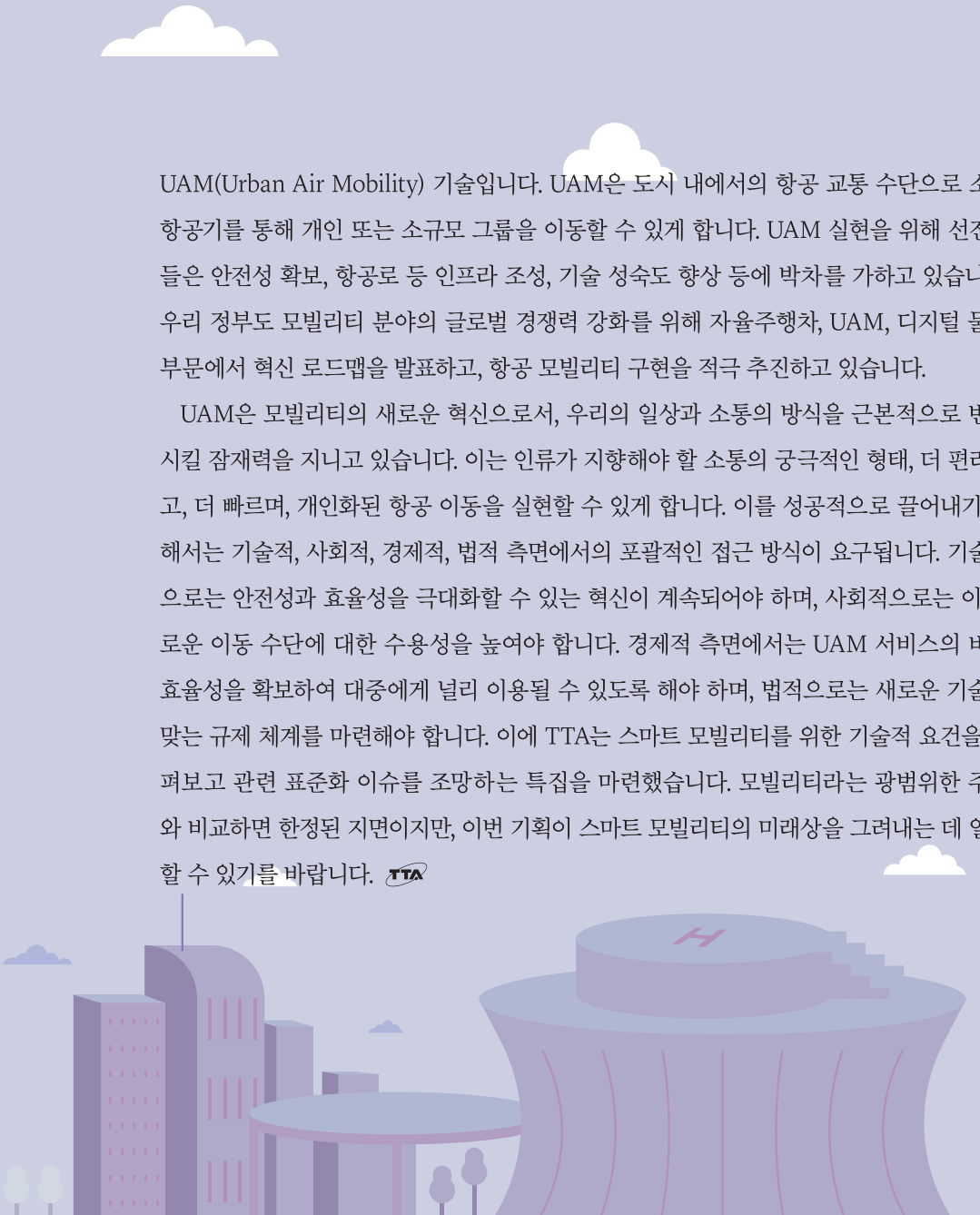
## 하늘길의 모빌리티 혁신, UAM

오승곤 TTA저널 편집위원장

인류 발전의 중심에는 소통 방식의 혁신이 늘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소통의 중요성과 함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길’의 중요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소통 수단의 발달과 그 수단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길의 발전이 인류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통신네트워크, 자동차와 고속도로, 비행기와 항공로, 선박과 항행로 등은 인류의 소통 수단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수단과 이를 위한 길의 인프라 발전이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왔으며, 이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며, 더 접근하기 쉬운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들의 발전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은 이제 1인 소통을 넘어, 사물과도 소통하게 되었고, 지상교통도 1인 이동을 넘어, 자율 이동의 소통 수단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항공교통에 있어서도 개인화된 1인 소통의 길을 열기 위한 글로벌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UAM(Urban Air Mobility) 기술입니다. UAM은 도시 내에서의 항공 교통 수단으로 소형 항공기를 통해 개인 또는 소규모 그룹을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UAM 실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안전성 확보, 항공로 등 인프라 조성, 기술 성숙도 향상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 UAM, 디지털 물류 분야에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항공 모빌리티 구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은 모빌리티의 새로운 혁신으로서, 우리의 일상과 소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통의 궁극적인 형태, 더 편리하고, 더 빠르며, 개인화된 항공 이동을 실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이 계속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이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UAM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여 대중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TTA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기술적 요건을 살펴보고 관련 표준화 이슈를 조망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광범위한 주제와 비교하면 한정된 지면이지만, 이번 기획이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상을 그려내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